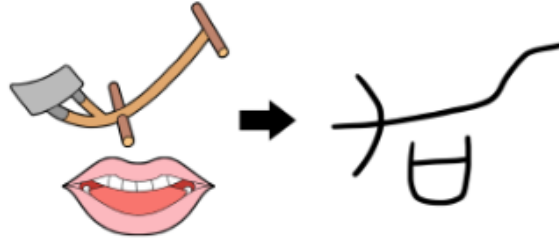


5  
-  
1

회의문자 ⓘ



加

더할 가

加자는 '더하다'나 '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加자는 力(힘 력)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力자는 농기구를 그린 것으로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 加자는 이렇게 '힘쓰다'라는 뜻을 가진 力자에 口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 의미는 '찬미하다'나 '칭찬하다'였다. 그러니까 加자는 농사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후에 농사일을 통해 생산물이 증대되는 것에 빗대게 되면서 '더하다'나 '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丷(악기이름 주)자가 더해진 嘉(아름다울 가)자가 '찬미하다'나 '칭찬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𠬞

금문

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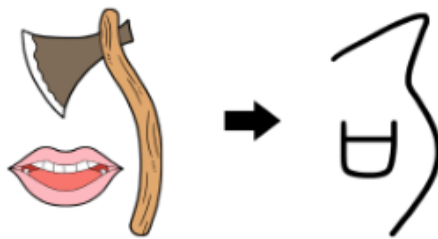
소전

加

해서

5  
-  
2

회의문자 ⓘ



可

옳을 가:

可자는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본래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농요(農謠)이다. 그래서 可자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可자가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의 欠(하품 흠)자를 결합한 歌(노래 가)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𠬞

갑골문

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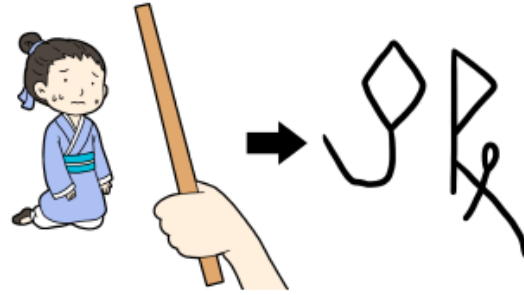
𠬞

소전

可

해서

## 회의문자①



改

고칠  
개(·)

改자는 '고치다'나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改자에서 말하는 '바꾸다'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改자는 己(자기 기)자와 攴(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改자의 갑골문을 보면 巳(뱀 사)자와 攴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巳자는 사전상으로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는 태아를 그린 것이다. 다만 갑골문에 쓰인 巳자는 '태아'가 아닌 '어린이'로 해석해야 한다. 改자는 회초리로 어린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고치다'나 '바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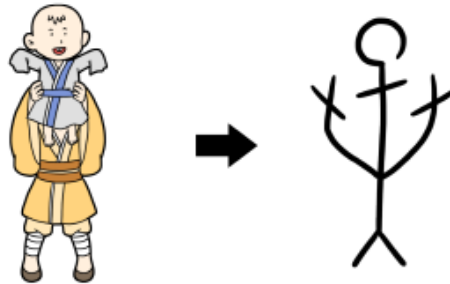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舉

들 거:

舉자는 '들다'나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舉자는 舁(마주들 여)자와 与(어조사 여)자, 手(손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舁자는 위아래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마주 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舉자에는 총 5개의 손이 그려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舉자를 보면 단순히 아이를 번쩍 든 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부터는 다양한 글자가 조합되면서 지금의 舉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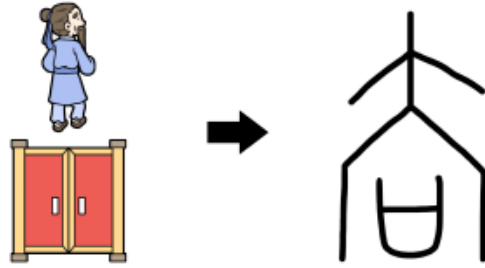
갑골문

소전

해서

5  
-  
5

회의문자①



去

갈 거:

去자는 '가다'나 '지나다', '내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去자는 土(흙 토)자와 厶(사사 사)자가 함께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去자는 大(큰 대)자와 口(입 구)자가 厶 결합한 것이었다. 去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린 사람 아래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口자는 '입'이 아닌 '문'을 뜻한다. 갑골문에서의 去자는 사람이 문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양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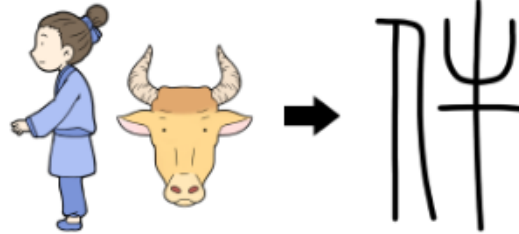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6

회의문자①



件

물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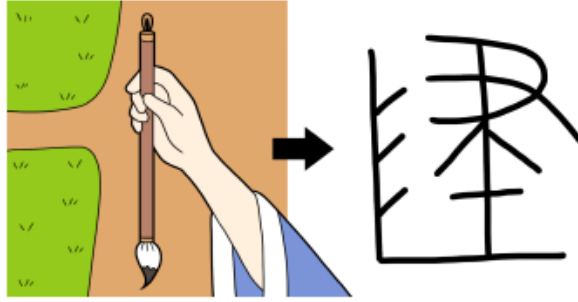
件자는 '물건'이나 '사건',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件자는 人(사람 인)자와 牛(소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件자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件자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또 件자에 있는 '나누다'라는 뜻을 두고 사람(人)이 소(牛)를 토막 내어 나누는 장면으로 보기도 한다. 토막을 내는 것이니 件자에 있는 '날개'라는 뜻도 이해가 가능하다.

소전

해서

5  
-  
7

회의문자①



建

세울 건:

建자는 '세우다'나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建자는 廴(길게 걸을 인)자와 聿(붓 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廴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建자와 律(법 올)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建자가 律자와 廷(조정 정)자의 생략형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법률을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설계하다'가 본래의 의미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建

금문

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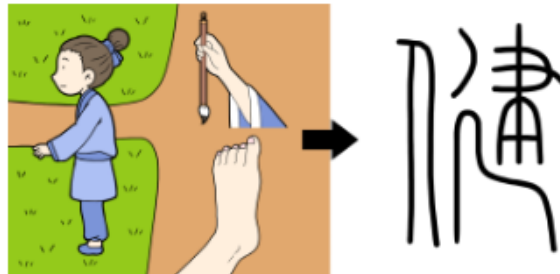
소전

建

해서

5  
-  
8

회의문자①



健

굳셀 건:

健자는 '건강하다'나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健자는 人(사람 인)자와 建(세울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建자는 길을 설계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길을 설계하다'나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 마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健자는 이렇게 '길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建자에 人자가 결합해 길을 튼튼하게 설계하듯이 사람의 몸이 '튼튼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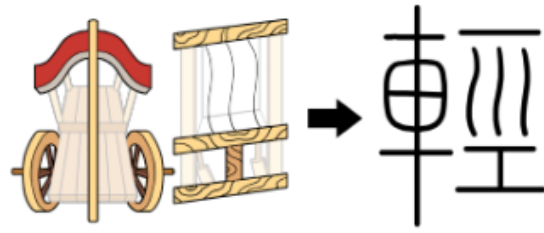
소전

健

해서

5  
-  
9

회의문자①



輕

가벼울  
경

輕자는 '가볍다'나 '가벼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輕자는 車(수레 차)자와 甹(물줄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甹자는 방직기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방직기 사이로 실이 가볍게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甹자에 車자가 결합한 輕자는 '수레가 가볍게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輕자에서 말하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차의 중량이 '가볍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輕자는 단순히 '가볍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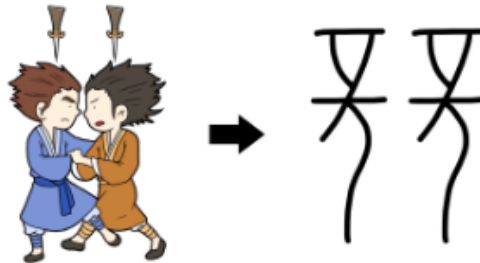
소전

輕

해서

5  
-  
10

회의문자①



競

다툼 경:

競자는 '겨루다'나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競자는 두 개의 立(설 립)자와 兄(만 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競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사람 인)자 위로 辛자가 𠂔𠂔 그려져 있었다. 辛자가 노예를 상징하는 글자이니 競자는 노예 둘을 함께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 노예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하도록 했다. 競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노예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하여 '다투다'나 '경쟁을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𠂔

갑골문

𠂔𠂔

금문

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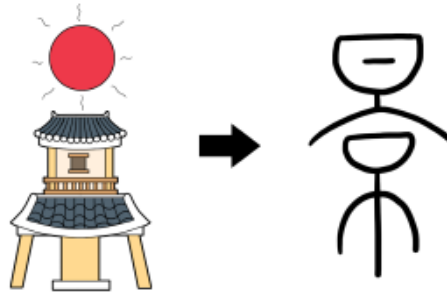
소전

競

해서

5  
-  
11

회의문자①



景

별 경(:)

景자는 '별'이나 '햇살', '경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景자는 日(해 일)자와 京(서울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京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그린 京자 위로 日자가 더해진 景자는 건물 위로 햇별이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景자에 그림자를 표현한 𦵏(터럭 삼)자가 더해지면 影(그림자 영)자가 된다.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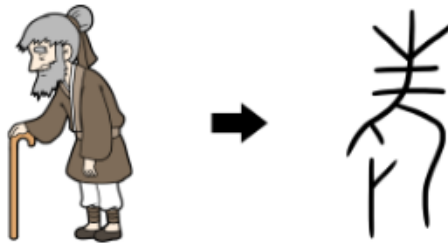
소전

景

해서

5  
-  
12

상형문자①



考

생각할  
고(:)

考자는 '생각하다'나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考자는 耂(늙을 노)자와 丂(공교할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丂자는 '숨씨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考자는 老(늙을 노)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다. 갑골문에서는 지팡이를 짚은 사람을 그려 '노인'을 뜻했었다. 금문에서 지팡이를 匕(비수 비)자로 표현한 耂자와 丂자로 표현한 考자가 파생되었는데, 考자는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깊이 헤아려 생각할 줄 아는 노인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을 뜻하는 老자와 달리 考자는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考

갑골문

考

금문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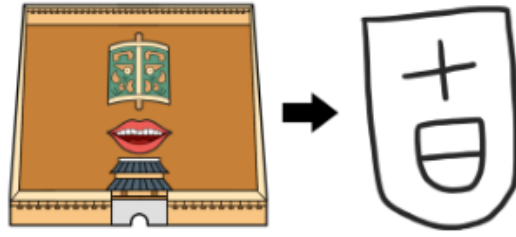
소전

考

해서

5  
-  
13

회의문자①



固

굳을  
고(·)

固자는 '굳다'나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固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口자는 성(城)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그린 것이다. 固자에 쓰인 古자는 '옛날'이나 '오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했다. 固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성벽이 오래도록 견고하다는 의미에서 '굳다'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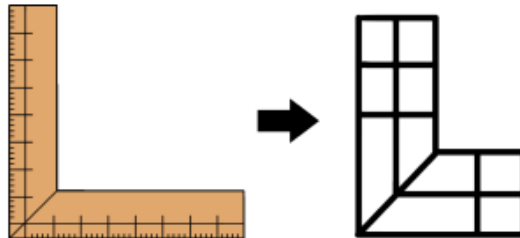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14

상형문자①



曲

굽을 곡

曲자는 '굽다'나 '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曲자는 曰(가로 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는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曲자를 보면 L자 모양에 눈금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길이를 측정하는 '자'를 그린 것이다. 다만 曲자는 굽은 형태에서 연상되는 '굽다'나 '바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  
-  
15

회의문자①



橋

다리 교

橋자는 '다리'나 '교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橋자는 木(나무 목)자와 喬(높을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喬자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걸려있는 갈고리를 𡵓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이 있다. 橋자는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喬자에 木자를 더한 것으로 높게 지어진 '다리'나 '교량'을 뜻한다. 예전에는 돌다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더 많았으니 木자가 다리의 재질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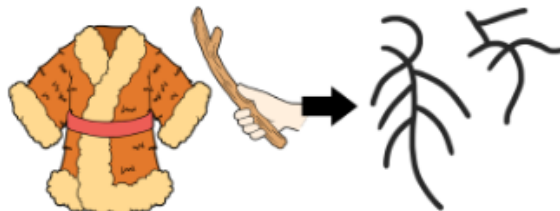
소전

橋

해서

5  
-  
16

회의문자①



救

구원할  
구:

救자는 '건지다'나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救자는 求(구할 구)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求자는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린 것으로 '구하다'나 '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救자는 이렇게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求자에 攴자를 결합한 것으로 누군가를 구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救자에 쓰인 攴자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내민다는 뜻으로 응용된 것이다.

救

금문

救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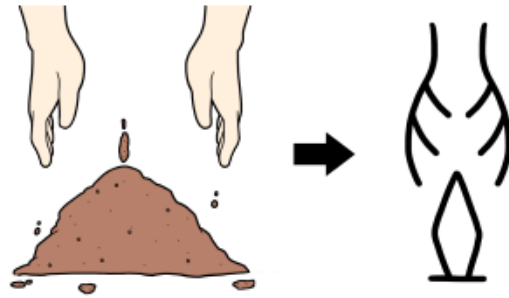
救

해서



5  
-  
17

회의문자①



貴

귀할 귀:

貴자는 '귀하다'나 '(신분이)높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貴자는 臼(절구 구)자와 土(흙 토)자,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貴자를 보면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농경을 중시하던 시대에 흙은 만물을 창조하는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양손으로 흙을 감싸는 모습을 그려져 '귀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여기에 貝자가 더해지면서 귀중함의 존재가 흙에서 재물로 옮겨져 오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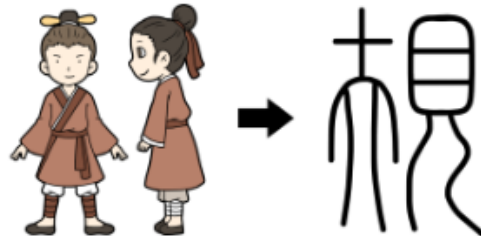
소전



해서

5  
-  
18

회의문자①



規

법 규

規자는 '법규'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規자는 夫(시아비 부)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夫자는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은 남자를 그린 것으로 '시아비'나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에는 결혼하거나 성인이 되어야 비녀를 꽂을 수 있었다. 그래서 夫자는 어른을 뜻한다. 어른을 뜻하는 夫자에 見자가 결합한 規자는 '어른의 안목'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規자는 어른의 안목은 '옳다'라는 의미에서 '법규'나 '법칙'을 뜻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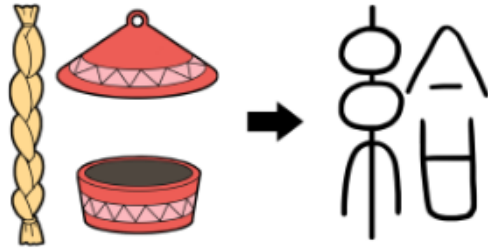
소전



해서

5  
-  
19

회의문자①



給

給자는 '주다'나 '더하다', '보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給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合(합 할 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合자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그린 것으로 '합하다'나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給자는 긴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실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合자에 糸자를 결합해 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의 給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지금의 給자는 단순히 '주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출 급

給

소전

給

해서

5  
-  
20

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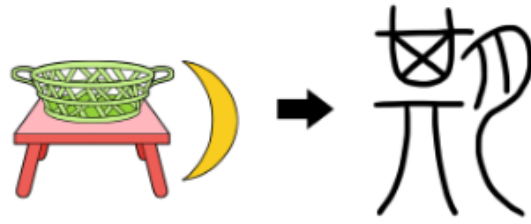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 (=水, 氷) ⇨ 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증기(蒸氣)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气(기)로 이루어짐. 수증기의 뜻.

물끓는김  
기

5  
-  
21

형성문자①



期

기약할  
기

期자는 '기약하다'나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期자는 其(그 기)자와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자는 '그'나 '그것'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달은 주기적으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달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니 期자에 쓰인 月자는 시간의 흐름을 뜻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其

금문

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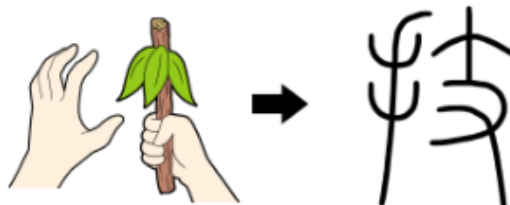
소전

期

해서

5  
-  
22

회의문자①



技

재주 기

技자는 '재주'나 '숨씨', '재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技자는 手(손 수)자와 支(지탱할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支자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기'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技자는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러나 후에 뜻이 파생되면서 손재주뿐만이 아니라 '재능'이나 '숨씨'와 같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뜻하게 되었다.

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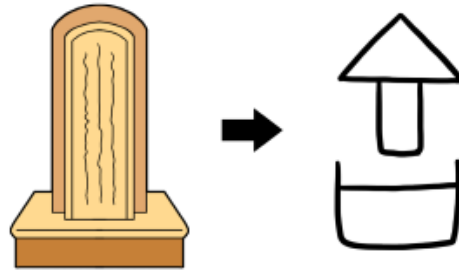
소전

技

해서

5  
-  
23

회의문자①



吉

길할 길

吉자는 '길하다'나 '상서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吉자는 士(선비 사)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吉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언가를 아래에 끼워 맞추려는 듯한 囗 모습 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전에 꽂아두는 위목(位目)을 그린 것이다. 위목은 신이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던 '위패'를 말한다. 그러니까 吉자는 성스러운 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의 미에서 '상서롭다'나 '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 吉자에 쓰인 士자는 위패를 표 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囗

갑골문

吉

금문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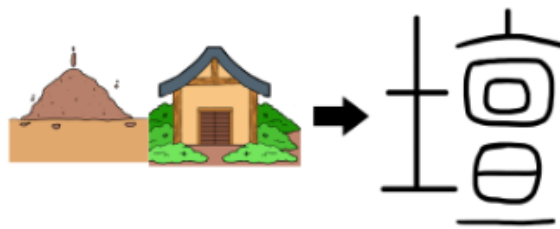
소전

吉

해서

5  
-  
24

형성문자①



壇

단 단

壇자는 '제단'이나 '강단',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壇자는 土(흙 토)자와 壇(밧음 단)자 가 결합한 모습이다. 壇자는 제기(祭器)나 출정식에 쓰이던 도구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것 이다. 제기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壇자에 土자가 결합한 壇자는 제사를 지내거나 출정식을 하던 넓고 평평한 장소를 뜻했다.

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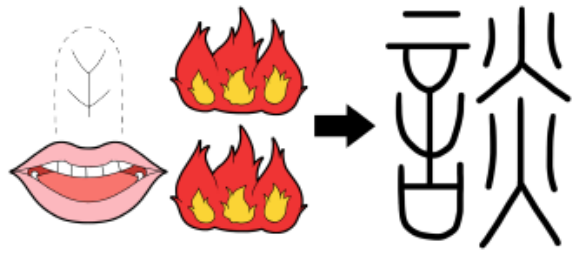
소전

壇

해서

5  
-  
25

회의문자①



談

말씀 담

談자는 '말씀'이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중국인들은 한자를 발전시키면서 때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단순히 '말'을 뜻할지라도 글자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談자가 그러하다. 談자는 言(말씀 언)자와 炎(불탈 염)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談자는 담판(談判)이나 담합(談合)과 같이 논쟁과 합의가 필요한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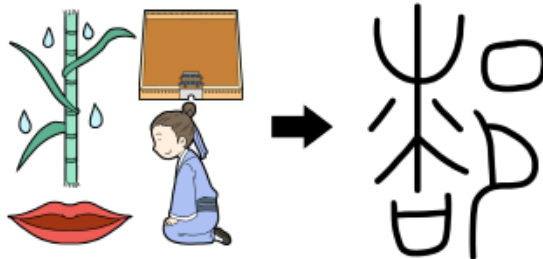
소전

談

해서

5  
-  
26

회의문자①



都

도읍 도

都자는 '도읍'이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都자는 耑(놈 자)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都자는 耑자가 아닌 '물가'를 뜻하는 澹(물가 저)자와 邑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대 인류는 물가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성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도시는 항시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都자는 그런 의미가 반영된 글자로 물가를 뜻하는 澹자에 邑자를 결합해 물가를 끼고 있는 도읍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都자에 아직도 '웅덩이'나 성 밖을 둘러싼 '못'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都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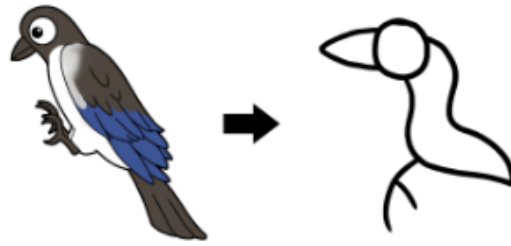
都

소전

都

해서

## 상형문자①



鳥

섬 도

鳥자는 '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미 새를 뜻하는 글자로써 隹(새 추)자가 있지만 鳥자는 모든 새를 총칭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鳥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꺼운 부리와 큰 눈이 묘사된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어떤 새를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적으로는 鳥자가 '큰 새'를 뜻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鳥자는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새의 종류'나 새와 연관되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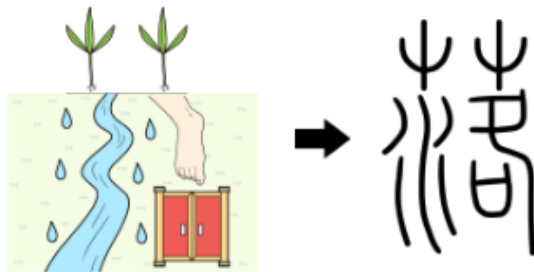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형성문자①



落

떨어질  
락

落자는 '떨어지다'나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落자의 생성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落자의 갑골문을 보면 비를 뜻하는 雨(비 우)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였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零(떨어질 각)자가 본래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零자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다'를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落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零자와 落자를 서로 혼용했지만 지금은 落자만 쓰이고 있다. 落자는 나뭇잎이나 비가 '떨어지다'를 표현한 것으로 零자에 艹(풀 초)자를 더해 의미를 확대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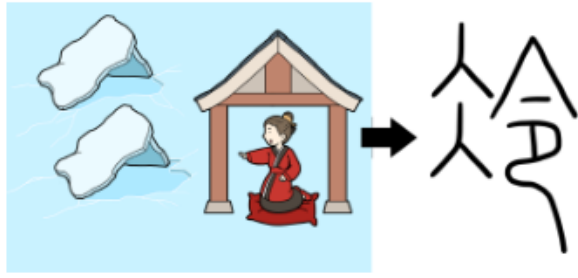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冷

찰 랑:

冷자는 '차다'나 '식히다', '쌀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冷자는 冫(얼음 빙)자와 令(영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令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冷자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와 冫자를 결합한 것으로 '차다'나 '쌀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冷자에 '인정미가 적다'라는 뜻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자는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를 빗대어 만들어진 글자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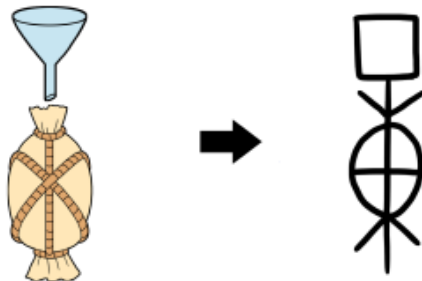
冷

소전

冷

해서

회의문자①



量

헤아릴  
량

量자는 '헤아리다'나 '재다', '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量자에서 말하는 '재다'나 '달다'라는 것을 무게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量자는 𠂔(아침 단)자와 里(마을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量자의 갑골문을 보면 東(동녘 동)자 위로 네모난 모형이 𠂔 그려져 있었다. 東자는 곡식의 씨앗이든 볏짚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곡식이 들어있는 볏짚을 그린 東자 위에 口자가 있는 것은 깔때기가 꽂혀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量자는 볏짚에 곡식을 담으며 양을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헤아리다'나 '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

갑골문

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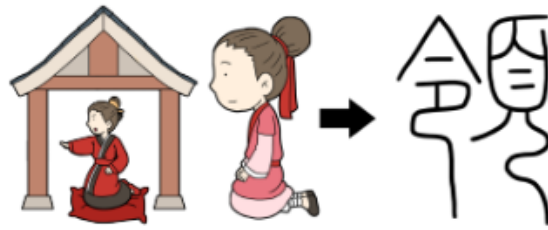
量

소전

量

해서

회의문자①



領

거느릴  
령

領자는 '거느리다'나 '다스리다', '통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領자는 令(영령)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令자는 대궐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주를 그린 것으로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令자 옆에 그려진 頁자는 군주 옆에 붙어있는 가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領자는 사람을 거느리며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거느리다'나 '통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領

소전

領

해서

회의문자①



令

하여금  
령(:)

令자는 '~하게 하다'나 '이름테면', '법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令자는 亼(삼합, 집)자와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令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머리 위로 지붕이 亼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큰 건물 아래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큰 건물이라는 것은 나랏일을 하던 관청을 뜻한다. 令자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명령하다'나 '법령'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令

갑골문

令

금문

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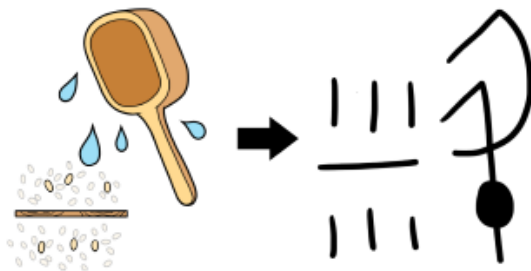
소전

令

해서



회의문자①



料

헤아릴  
료(:)

料자는 '헤아리다'나 '되질하다', '수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料자는 斗(말 두)자와 米(쌀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斗자는 쌀이나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던 국자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국자를 그린 斗자에 米자가 결합한 料자는 국자로 쌀을 퍼 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 나온 料자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국자 옆에 쌀을 𥽿 그려 용량을 헤아리고 있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料자에서 말하는 '헤아리다'라는 것은 국자로 쌀을 퍼담으며 용량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𥽿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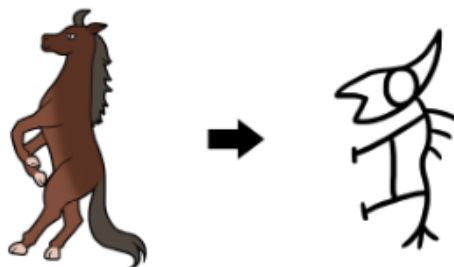
𥽿

소전

料

해서

상형문자①



馬

말 마:

馬자는 '말'을 그린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馬자를 보면 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큰 눈과 갈기가 함께 𩇛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머리와 갈기는 간략화 되었고 해서에서는 다리가 점으로 표기되면서 지금의 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말은 고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이용되었지만 주로 먼 거리를 달리는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馬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주로 '(말을)타다'나 '가다', 말의 행위, 동작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𩇛

갑골문

𩇛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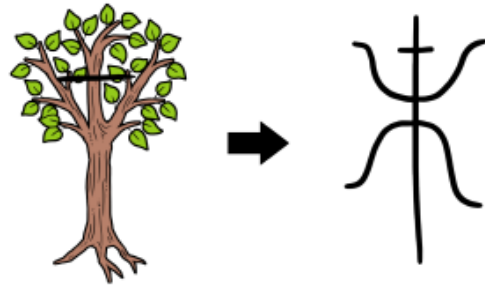
馬

소전

馬

해서

지사문자①



末

끝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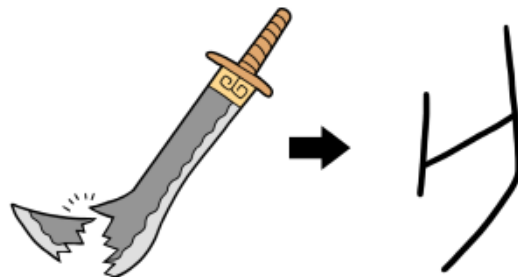
末자는 '끝부분'이나 '꼭대기'를 뜻하는 글자이다. 末자는 木(나무 목)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末자는 나무의 '끝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금문에 나온 末자를 보면 木자의 상단에 점이 찍혀있었다. 이것은 나무의 끝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끝'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末자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未(아닐 미)자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末자는 나무의 끝부분이 길게 그려져 있지만 未자는 짧게 쓰고 있으니 이러한 차이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亡

망할 망

亡자는 '망하다'나 '도망가다', '잃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亡자는 亠(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관계가 없다. 亡자의 갑골문을 보면 칼날 부분에 획이 하나 ㄣ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칼날이 부러졌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칼날이 부러졌다는 것은 적과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亡자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에서 '멸망하다'나 '도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亡자에는 '죽다'나 '잃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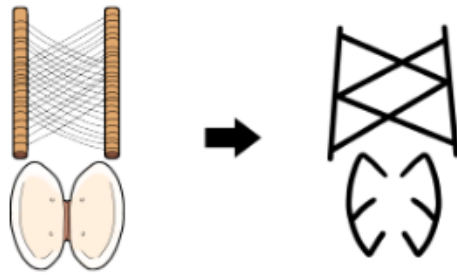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37

회의문자①



買

살 매:

買자는 '사다'나 '세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買자는 網(그물 망)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網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𦉳자로 바뀌게 되니 買자는 그물과 조개를 함께 그린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買자가 그물로 조개를 잡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서 貝자는 '화폐'나 '재물'을 뜻하고 있으니 買자는 그물로 재물을 쓸어 담는다는 뜻이다. 買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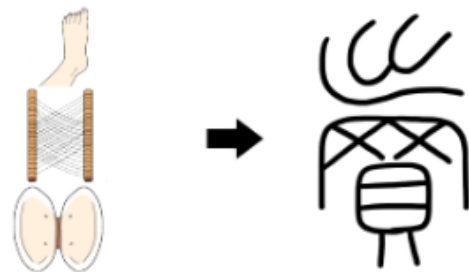
소전



해서

5  
-  
38

회의문자①



賣

팔 매(·)

賣자는 '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賣자는 買(살 매)자와 出(날 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賣자에 쓰인 士(선비 사)자는 出자가 잘못 변형된 것으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出자가 쓰였었다. 賣자는 '사다'라는 뜻을 가진 買자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고대에는 買자가 '사다'나 '팔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였었다. 사는 것이나 파는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지면서 買자에 '나가다'라는 뜻의 出자를 더한 賣자가 '팔다'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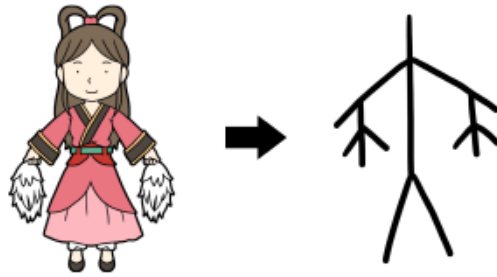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無

없을 무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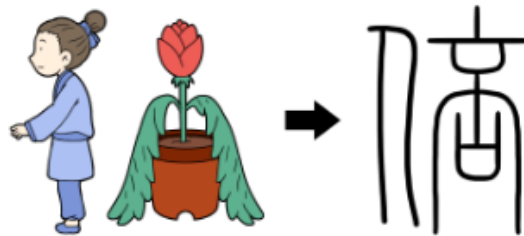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倍

곱 배(·)

倍자는 '곱'이나 '갑절',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倍자는 人(사람 인)자와 冫(침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식물의 줄기 아래에 口(입 구)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침을 뱉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倍자의 어원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倍자에 쓰인 冫자가 본래는 冫(아닐 부)자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倍자는 冫자를 冫자로 해석하여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배반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 倍자에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것은 남을 배반하거나 반대하면 나에게서는 '갑절로 돌아온다.'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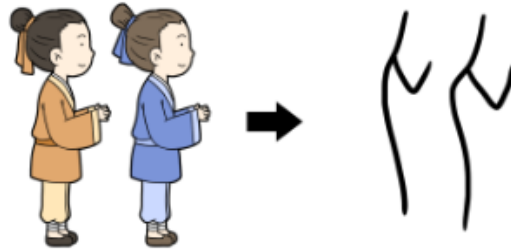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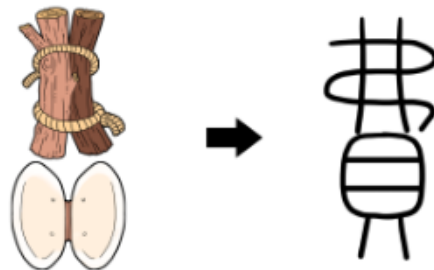
比

견줄 비:

比자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比자는 두 사람이 우측을 향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본래 比자는 '친하다'나 '친숙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견주다'나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比자는 匕(비수 비)자를 겹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匕자가 부수자인 것으로 착각될 수도 있지만 比자는 엄연히 단독부수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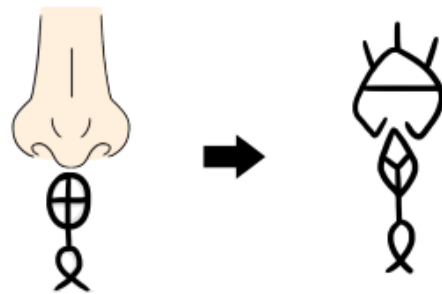
費

쓸 비:

費자는 '쓰다'나 '소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費자는 弗(아닐 불)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弗자는 나무토막을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나 '근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기에 걱정거리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費자에 쓰인 弗자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費자는 '돈이 지출되니 걱정이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鼻

코 비:

鼻자는 '코'를 뜻하는 글자이다. 鼻자는 본래 코를 뜻했던 自(스스로 자)자가 '자기'나 '스스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畀(줄 비)자를 결합해 만든 글자이다. 鼻자에 쓰인 畀자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코와 폐를 연결하는 기관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鼻자는 숨을 들이쉬는 코와 폐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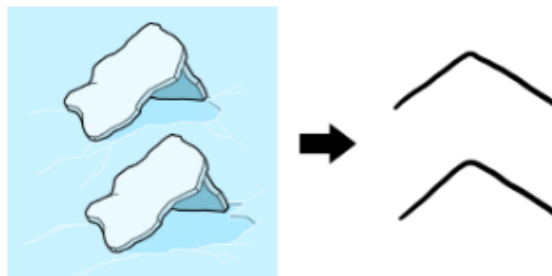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冰

얼음 빙

氷(氷)자는 '얼음'이나 '서늘하다', '영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氷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언가가 솟아오른 冫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얼음이 깨지면서 부풀어 오른 모습을 표현한 冫(얼음 빙)자이다. 평평했던 강의 얼음이 깨지면서 위로 솟구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이것이 물과 관련된 글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水(물 수)자가 더해진 氷자가 등장하였고 이것이 다시 간략화되면서 氷자도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冫자는 얼음과 관련된 부수자 역할을 하고 氷자나 冰자는 단독으로 '얼음'을 뜻할 때 쓰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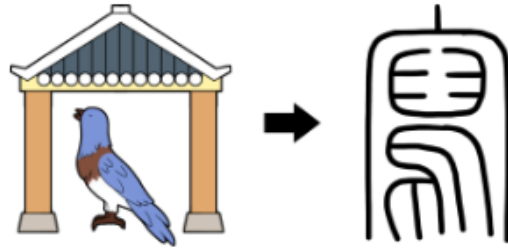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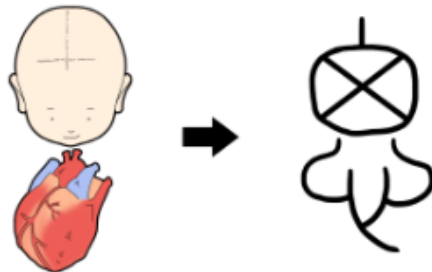
베낄 사

寫자는 '베끼다'나 '본뜨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寫자는 宀(집 면)자와 鳥(까치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鳥자는 '까치'라는 뜻이 있지만, 고대에는 나무로 만든 '신발'을 뜻하기도 했다. 이 신발은 왕을 알현하던 대신(大臣)들이 신던 것이다. 왕을 알현할 때 신던 것이라 아무 데나 벗어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신발을 벗은 후에 항상 집안으로 옮겨놓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을 寫라고 했다. 후에 寫자는 '옮기다'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베끼다'나 '본뜨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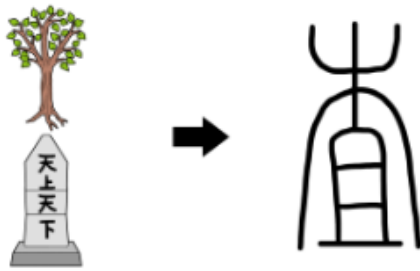
생각  
사(:)

思자는 '생각'이나 '심정', '정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思자는 田(밭 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囟(정수리 신)자가 들어간 思(생각할 사)자가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囟자는 사람의 '정수리'를 그린 것이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정수리에는 기가 통하는 숨구멍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囟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그러니 思자는 머리(囟)와 마음(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깊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囟자가 田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전

해서

## 형성문자①



查

조사할  
사

査자는 '조사하다'나 '사실 그대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査자는 木(나무 목)자와 冫(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비문을 적어 놓은 묘비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차→사'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査자는 본래 '뗏목'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木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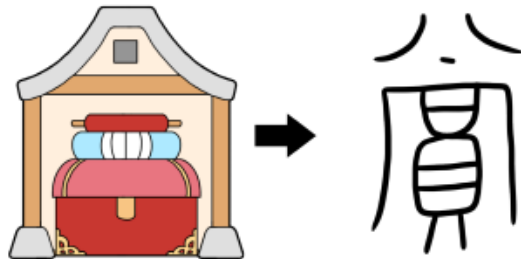
𣎵

소전

查

해서

## 회의문자①



賞

상줄 상

賞자는 '상을 주다'나 '증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賞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상은 재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貝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尙자는 집과 창문을 함께 그린 것이다. 이렇게 집을 그린 尙자와 貝자가 결합한 賞자는 집에 재물이 놓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상으로 받은 재물이 집 앞마당에 놓여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글자이다. 賞자에 '구경하다'라는 뜻도 있으니 상을 받는 모습을 축하하며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연상된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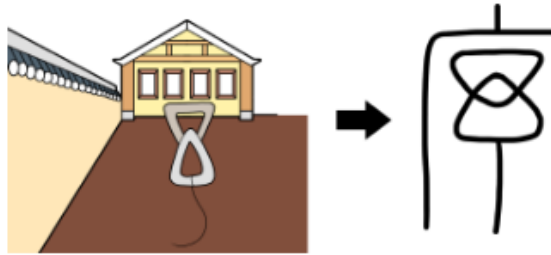
소전

賞

해서



## 형성문자①



序

차례 서:

序자는 '차례'나 '질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序자는 宀(집 엄)자와 予(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을 감는 '실패'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序자는 본래 '담벼락'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나 '질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쓰이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실을 감는 도구를 그린 予자가 '차례'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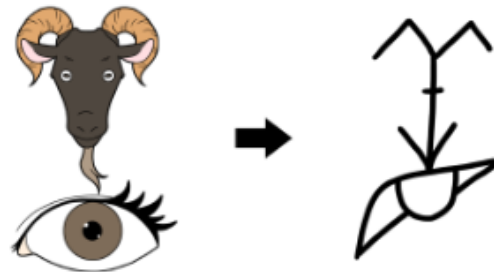
序

소전

序

해서

## 회의문자①



善

착할 선:

善자는 '착하다'나 '사이좋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善자를 보면 양과 눈이 함께 𦍋 그려져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답은 '양의 눈망울과 같은'이다. 뜻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식으로는 '사슴 같은 눈망울'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보통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일컬어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졌다고 말하곤 한다. 善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目자 대신 言(말씀 언)자가 𦍋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였다. 이후 善자는 변화를 거듭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𦍋

갑골문

𦍋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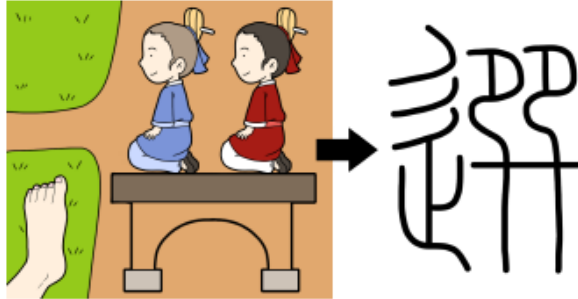
善

소전

善

해서

회의문자①



選

가릴 선:

選자는 '가리다'나 '뽑다',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選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巽(유순할 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巽자는 탁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選자는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린 巽자를 응용해 누구를 보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選자는 여러 사람 중의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에서 '가리다'나 '뽑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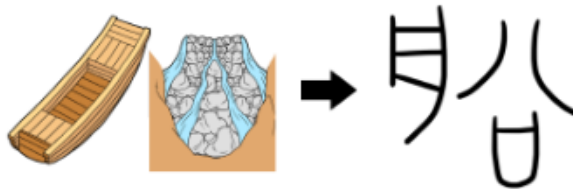
選

소전

選

해서

회의문자①



船

배 선

船자는 '배'나 '선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船자는 舟(배 주)자와 舩(높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舩자는 물이 고여 있는 '높'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船자는 舟자와 沿(물 따라갈 연)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沿자는 물이 높으로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물을 따라 굽어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船자는 이렇게 '물을 따라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沿자에 舟자를 결합한 것으로 배가 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舩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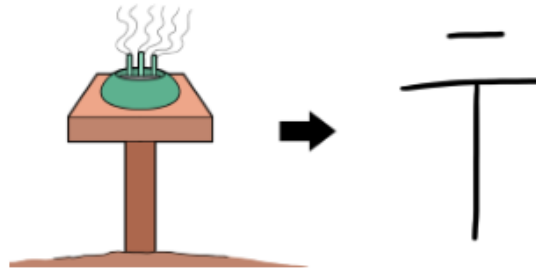
船

소전

船

해서

상형문자①



示

보일 시:

示자는 '보이다'나 '알리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을 그린 것이다. 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던 단(壇)을 말하는 것으로 示자는 바로 그것을 그린 것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내면 길흉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보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신'이나 '귀신', '제사', '길흉'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礻 자로 바뀌기 때문에 衣(옷 의)자의 부수자인 衤 자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示

갑골문

示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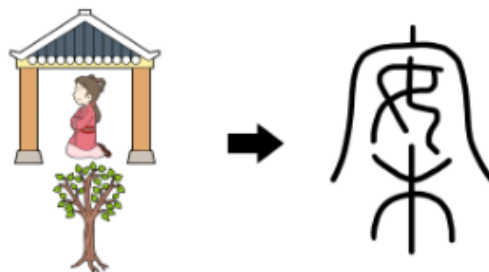
示

소전

示

해서

회의문자①



案

책상 안:

案자는 '책상'이나 '생각', '안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案자는 木(나무 목)자와 安(편안할 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安자는 집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앉아있는 모양만이 응용되어 있다. 案자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安자에 木자를 결합한 것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을 뜻하고 있다. 책상은 공부나 업무를 보는 데 쓰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안건', '장부', '공문서'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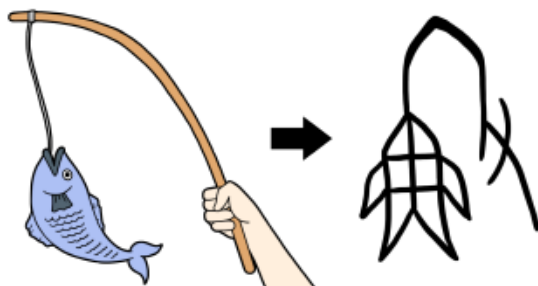
案

소전

案

해서

회의문자①



漁

고기잡을  
어

漁자는 '물고기를 잡다'나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漁자는 水(물 수)와 魚(고기 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漁자가 등장했었다. 어떤 것은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또 다른 것은 水자에 물고기를 漁 그려넣은 형태였기 때문이다. 금문에서는 양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𩺰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했었다. 지금은 그중에서도 水자와 魚자가 결합한 형태가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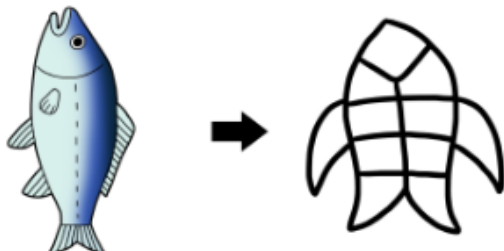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魚

고기/물  
고기 어

魚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이다. 魚자는 물고기를 그대로 그린 상형문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魚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𩺰 잘 묘사되어 있었다. 이후 해서에서 물고기의 몸통과 꼬리를 田(밭 전)자와 𩺰(불 화)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魚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魚자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활용될 때는 주로 어류의 종류나 부위,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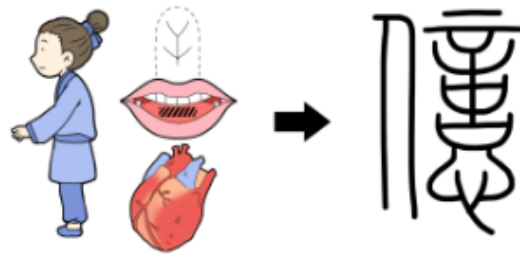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億

억[數字]  
억

億자는 '헤아리다'나 '많은 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億자는 人(사람 인)자와 意(뜻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億자는 소전에서야 처음 등장한 글자이다. 소전 이전에는 意(뜻 의)자가 의미를 대신 했기 때문이다. 意자는 사람의 입과 심장을 연결한 것으로 '뜻'이나 '의미',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億자는 이렇게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意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무수히 많다'나 숫자 단위인 '억'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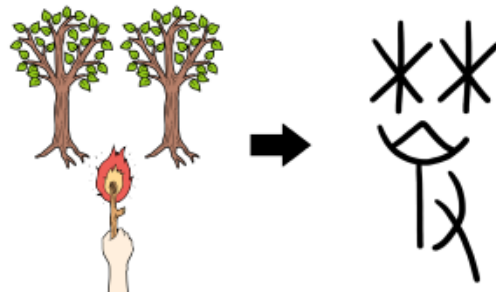
億

소전

億

해서

회의문자①



熱

더울 열

熱자는 '덥다', '더워지다', '바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熱자는 火(불 화)자와 執(심을 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는 어린 초목을 땅에 심고 있는 執(執)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심다'나 '기세'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보통 熱자는 "불(火)의 기세(執)가 매우 거세다." 즉, '매우 덥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런데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熱자가 본래는 熱(불사를 열)자와 같은 글자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갑골문에서의 熱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불사르다'라는 뜻의 熱자가 만들어졌고 熱자는 '덥다'라는 뜻으로 파생된 것으로 본 것이다.

熱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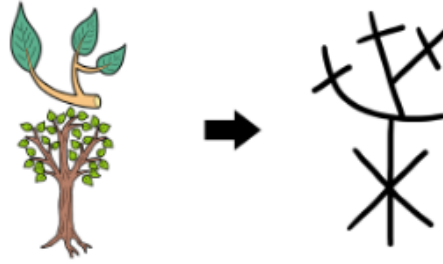
熱

소전

熱

해서

## 회의문자 ①



葉

앞 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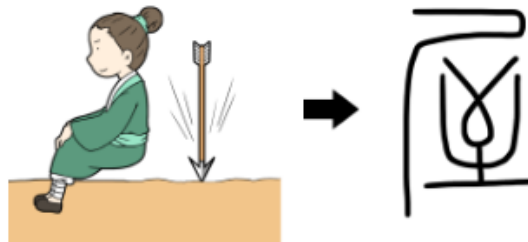
葉자는 '나뭇잎'이나 '세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葉자는 艹(풀 초)자와 葉(나뭇잎 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葉자는 나무 위로 새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뭇잎'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본래 '나뭇잎'이라는 뜻은 世(인간 세)자가 먼저 쓰였었다. 世자는 나뭇가지 위에 붙은 나뭇잎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후에 世자가 '세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葉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소전에서는 다시 艹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葉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葉자는 한때 한 닢 두 닢과 같이 등전을 세는 단위로도 쓰였었다. 당시의 등전이 나뭇잎을 닮아 엽전(葉錢)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또 낙엽이 떨어지면 한해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세대'를 뜻하기도 한다.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屋

집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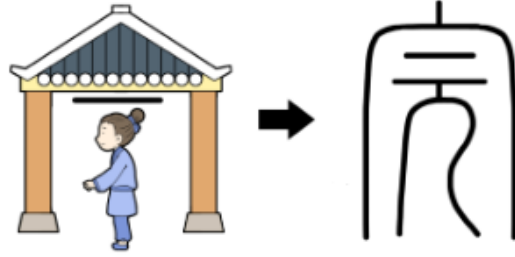
屋자는 '집'이나 '주거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屋자는 尸(주검 시)자와 至(이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至자는 화살이 땅에 박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다르다'나 '(영향이)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 屋자는 시신을 뜻하는 尸자에 至자를 더한 것으로 '조상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屋자가 조상의 명패를 모시던 방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집'이나 '주거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5  
-  
61

회의문자 ①



完

완전할  
완

完자는 '완전하다'나 '일을 완결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完자는 宀(집 면)자와 元(으뜸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元자는 사람의 머리를 강조해 그린 것으로 '으뜸'이나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完자는 본래 집짓기를 끝마쳤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집을 지을 때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그래서 完자는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元자를 응용해 '집을 으뜸으로 지었다.' 즉, 집을 잘 지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집을 잘 지었다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그래서 完자는 '끝내다'나 '일을 완결 짓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完

소전

完

해서

5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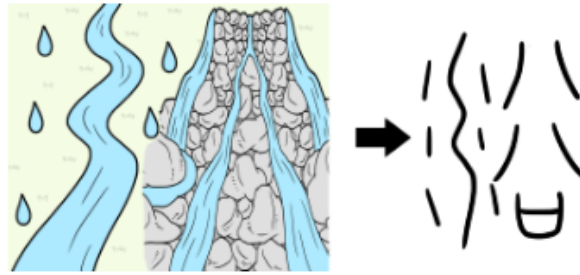
曜

빛날 요: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날일(日 ☞ 해)部和 음(音)을 나타내는 曜(적→요)로 이루어짐. 해가 환하게 「비치다」의 뜻.

회의문자①



浴

목욕할  
욕

욕자는 '목욕하다'나 '몸을 씻다', '수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욕자는 水(물 수)자와 谷(골짜기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谷자는 산등성이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그린 것으로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린 谷자에 水자를 더한 욕자는 계곡물에 '목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浴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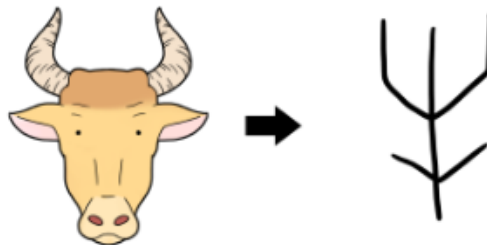
浴

소전

浴

해서

상형문자①



牛

소 우

牛자는 '소'를 뜻하는 글자이다. 牛자의 갑골문을 보면 뿔이 달린 소의 머리가 간략하게 𠂔 그려져 있었다. 갑골문에서부터 소전까지는 이렇게 소의 양쪽 뿔이 잘 묘사되어 있었지만, 해서에서는 한쪽 뿔을 생략해 '절반'을 뜻하는 𠂔(반 반)자와의 혼동을 피하고 있다.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느리지만 묵직한 힘으로 밭을 갈거나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소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牛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제물(祭物)'이나 '농사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牛

갑골문

牛

금문

牛

소전

牛

해서



# 雄

수컷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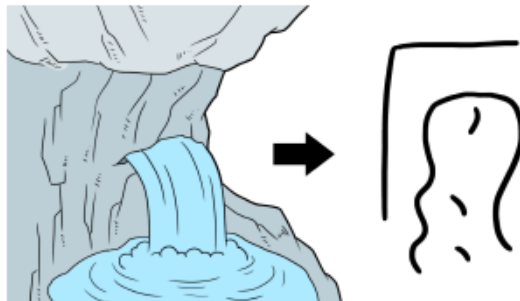
##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새추(隹 ㇾ 새)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ㄱ(굉→웅)이 합(합)하여 이루어짐. 굳센 수컷새(새추(隹 ㇾ 새)部)의 뜻이 합(합)하여 「수컷」을 뜻함. 새의 수컷, 그것으로부터 굳세다, 웅감하다는 뜻으로 되었음.

# 原

언덕 원

## 상형문자①



原자는 '근원'이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原자는 厂(기슭 엄)자와 泉(샘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泉자는 돌 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모습을 한자화한 것이다. 여기에 厂자가 결합한 原자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뜻했다. 그러나 지금의 原자는 물길의 시작점이 아닌 '근본'이나 '사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후에 水(물 수)자를 더한 源(근원 원)자를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실제 쓰임에서는 原자와 源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原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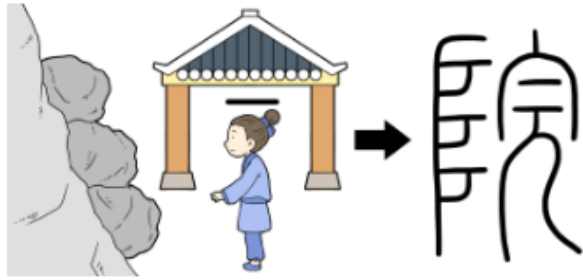
原

소전

原

해서

## 회의문자①



院

院자는 '집'이나 '정원', '관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院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完(완전할 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完자는 집을 온전하게 잘 지었다는 의미에서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다. 院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집을 뜻하는 完자에 阜자를 더한 것으로 담벼락이 있는 잘 지어진 큰 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院자는 잘 지어진 집(完)과 담장(阜)을 함께 표현한 글자이다. 지금은 주로 규모가 큰 건물을 뜻할 때 쓰인다.

집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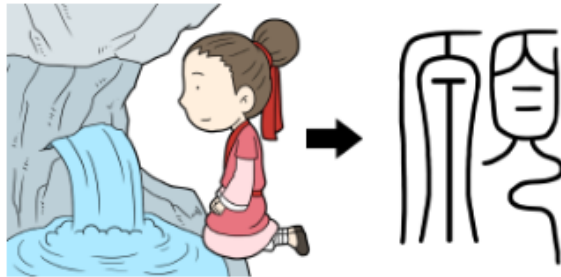
院

소전

院

해서

## 회의문자①



願

願자는 '원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願자는 原(근원 원)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願자는 본래 '큰 머리'나 '머리가 커지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커지다'는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후에 아는 것이 많아지면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원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原자는 발음 외에도 끊임없이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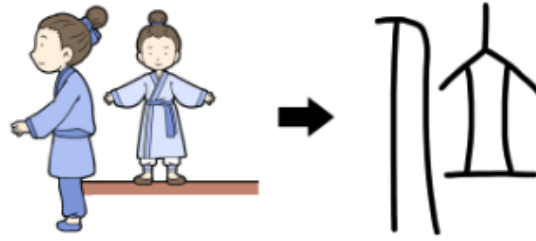
願

소전

願

해서

회의문자①



位

자리 위

位자는 '자리'나 '위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位자는 人(사람 인)자와 立(설 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立자는 팔을 벌린채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서다'나 '똑바로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位자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그린 立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서 있는 '위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계급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앉는 위치도 달랐다. 그래서 位자는 '자리'라는 뜻 외에도 '지위'나 '직위'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位

소전

位

해서

상형문자①



耳

귀 이:

耳자는 '귀'나 '듣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耳자는 오른쪽 귀의 귓바퀴와 귓볼을 그린 것이다. 耳자는 사람의 귀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귀의 기능인 '듣다'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글자에서는 항아리나 술과 같이 단순히 물체의 '손잡이'를 뜻할 때도 있다. 참고로 중국 고문(古文)에서는 耳자가 종종 '~일 뿐이다'나 '~일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곤 했다.

耳

갑골문

耳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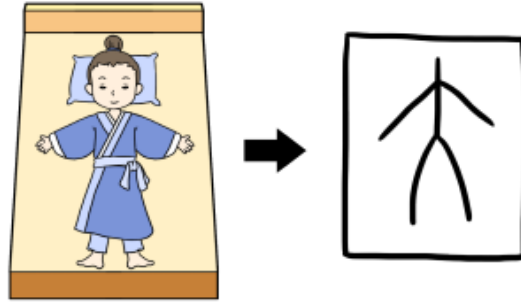
耳

소전

耳

해서

회의문자①



大

인할 인

因자는 '인하다'나 '말미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因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大(큰 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因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因자의 본래 의미는 '자리'였다. 그러나 후에 因자가 '인하다'나 '말미암다'와 같이 어떠한 원인과 이유를 뜻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艹(풀 초)자가 더해진 茵(자리 인)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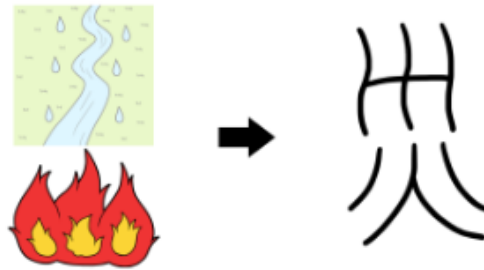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災

재앙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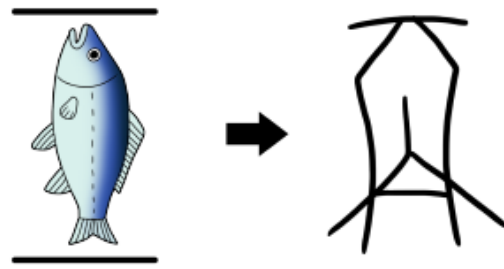
災자는 '재앙'이나 '화재',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災자는 火(불 화)자와 災(내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앙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중에서도 '화재'와 '홍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다. 災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火자는 '화재'를 災자는 '홍수'를 뜻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火자와 災(집 면)자가 결합한 災자가 쓰인다.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再

두 재:

再자는 '재차'나 '거듭',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再자는 冂(멀 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멀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再자의 갑골문을 보면 물고기의 입과 꼬리 부분에 획이 하나씩 𩺰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수면 위와 아래를 표현한 것이다.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 위로 입을 내밀어 숨을 쉬곤 한다. 再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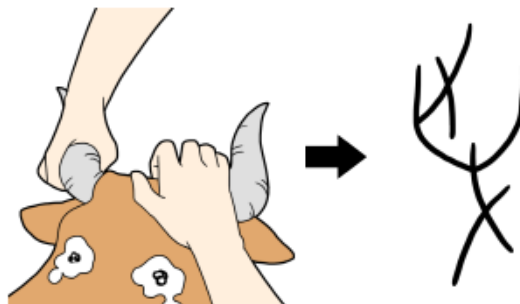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爭

다툼 쟁

爭자는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爭자는 爪(손톱 조)자와 又(또 우)자, 丿(갈고리 꺾)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爪자는 '손톱'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손'의 동작으로 쓰였다. 갑골문에 나온 爭자를 보면 소의 뿔을 놓고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소뿔 대신 쟁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서로 다투고 있다는 뜻은 같다. 爭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의미에서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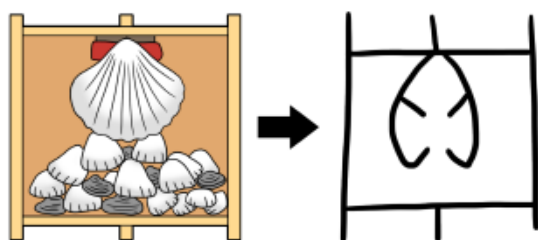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貯

쌓을 저:

貯자는 '쌓다'나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貯자는 貝(조개 패)자와 宀(쌓을 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본래 금고의 일종을 그린 것으로 '쌓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貯자의 갑골문을 보면 네모난 상자 안에 貝자가 冫(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금고에 돈이나 재물을 넣어놨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貯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재물을 금고에 쌓아놓거나 보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쌓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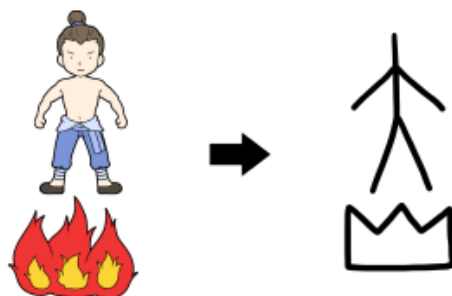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赤

붉을 적

赤자는 '붉다'나 '비다', '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赤자는 大(큰 대)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赤자에서는 大자와 火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갑골문에 나온 赤자를 보면 불 위에 사람이 大(대)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赤자는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赤자에 '멀하다'나 '물살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赤자는 사람이 불을 뽕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赤자에 '붉다'나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명확한 해석이 없지만 赤자는 사람과 불을 함께 그린 것으로 '붉다'나 '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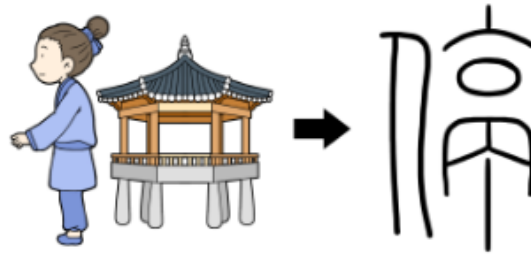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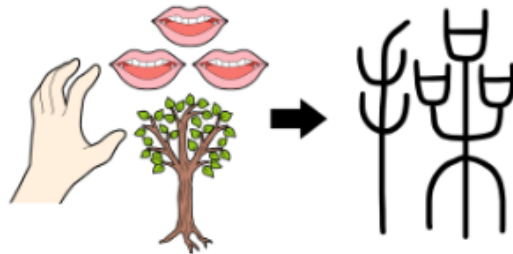
머무를  
정

停자는 '머무르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停자는 人(사람 인)자와 亭(정자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亭자는 간단하게 지어진 정자를 그린 것으로 '정자'나 '여인숙'이라는 뜻이 있다. 정자나 여인숙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거나 숙박했던 곳을 말한다.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를 뜻하는 亭자에 人자가 더해진 停자는 '사람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다.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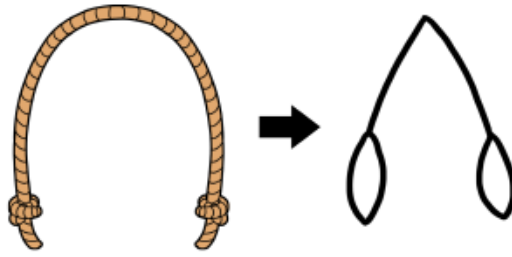
잡을  
조(:)

操자는 '잡다'나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操자는 手(손 수)자와 梟(올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梟자는 나무 위에 새들이 떼 지어 지저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梟자에 手자를 결합한 操자는 손으로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새들은 사람의 인기척에 쉽게 날아가곤 하니 잡을 때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操자는 '잡다'라는 뜻 외에도 '조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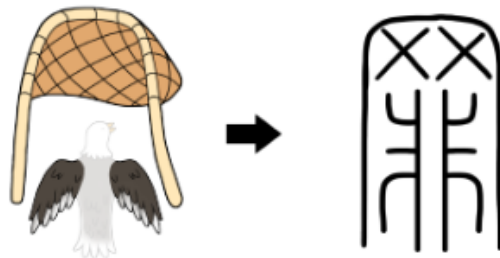
終

마칠 종

終자는 '끝나다'나 '마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終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冬(겨울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冬자는 새끼줄 양 끝에 매듭을 묶어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끝나다'나 '마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冬자가 '겨울'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자를 더한 終자가 '끝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罪

허물 죄:

罪자는 '허물'이나 '죄', '잘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罪자는 网(그물 망)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허물'이나 '죄'라는 뜻은 𡵓(허물 죄)자가 쓰였었다. 𡵓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것으로 고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잘라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𡵓(𡵓)자가 '황제'를 뜻하는 皇(임금 황)자와 𡵓 비슷하여 진시황 때는 이를 피해 새로이 만든 글자가 바로 罪자이다. 罪자는 '아니다'나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网자를 결합한 것으로 '잘못(非)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网)'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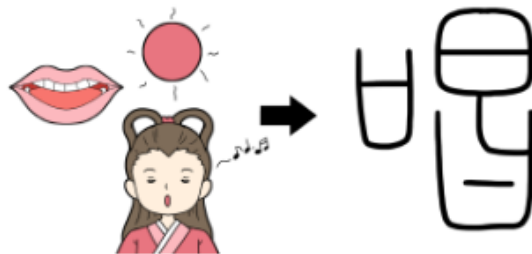
止

그칠 지

止자는 '그치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을 나온 止자를 보면 엄지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발이 그려졌었다. 이것은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지만 사전적으로는 '그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발걸음이 멈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止자는 '금지(禁止)하다'와 같이 무언가를 멈추거나 억제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止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가다'나 '이동하다'처럼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그렇기에 止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뜻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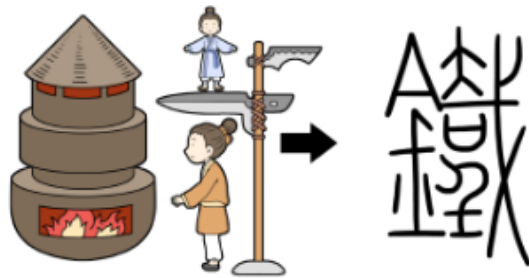
唱

부를 창:

唱자는 '(노래를)부르다'나 '말을 꺼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唱자는 口(입 구)자와 昌(창성할 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昌자는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昌자가 태양의 강렬함에 빚대어 '창성하다', '번성하다'의 뜻을 갖게 되자 여기에 口자를 더한 唱자가 '말을 꺼내다'나 '(노래를)부르다'를 뜻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鐵

쇠 철

鐵자는 ‘철’이나 ‘무기’,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鐵자는 金(쇠 금)자와 戴(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戴 자는 哉(어조사 재)자에 冫(천간 임)자가 더해진 것이지만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鐵자는 단단하고 강한 강도를 가진 쇠를 뜻한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시대로 진입하면서 인류는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무기를 철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철이 청동기보다 훨씬 강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鐵자는 ‘단단하다’나 ‘견고하다’라는 뜻 외에도 철제로 만든 ‘무기’나 ‘갑옷’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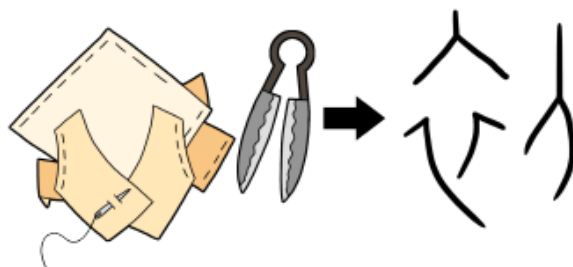
鐵

소전

鐵

해서

회의문자①



初

처음 초

初자는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初자는 衤(옷 의)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衤 자는 衣(옷 의)자의 부수자이기 때문에 初자는 옷과 칼을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初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천이나 가죽에 칼질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初

갑골문

初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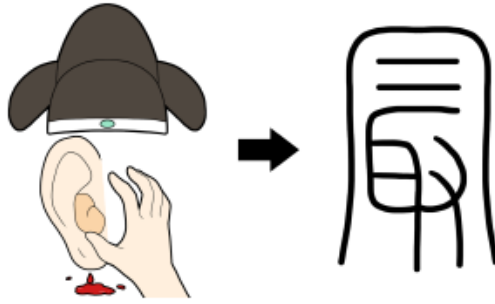
初

소전

初

해서

회의문자①



最

가장 최:

最자는 '가장'이나 '최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最자는 臼(가로 알)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는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最자에 쓰인 臼자는 冑(무릅쓸 모)자가 생략된 것  
이기 때문이다. 最자의 소전을 보면 감투 안으로 귀를 잡은 冑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모자를 취하다' 즉, '모자를 빼앗다'라는 뜻이다. 남의 모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  
동이다. 그래서 最자는 본래 매우 예의 없는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그러나 후에 모자를 '관  
직'에 비유하면서 실력이 뛰어나 '관직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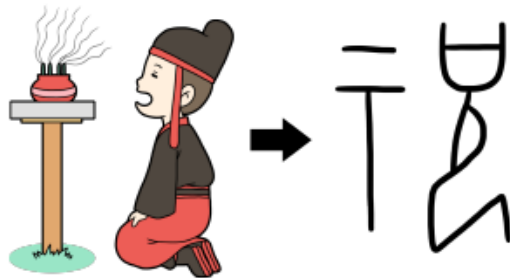
冑

소전

最

해서

회의문자①



祝

빌 축

祝자는 '빌다'나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祝자는 示(보일 시)자와 兄(만 형)자가 결  
합한 모습이다. 兄자는 무릎을 꿇고 축문(祝文)을 읽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축문을  
읽는 모습에 示자가 결합한 祝자는 제단 앞에서 축문을 읽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는 축문을 읽어 신에게 제사가 시작됨을 고하게 된다. 그래서 祝자는 신에게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빌다'나 '기원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示兄

갑골문

祝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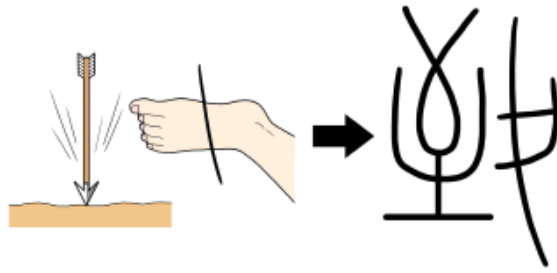
祝

소전

祝

해서

## 회의문자①



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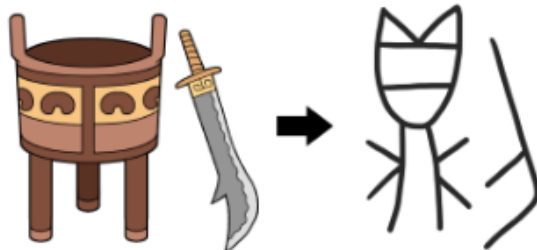
이를 치:

致자는 '이르다'나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致자는 至(이를 지)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攴자가 아닌 攴(천천히 걸을 쇠)자가 쓰였었다. 攴자는 '발'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소전에서의 致자는 '이르다'라는 뜻의 至자에 攴자를 결합해 발걸음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음을 뜻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攴자가 攴자로 잘못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則

법칙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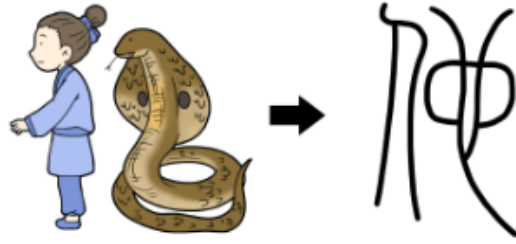
則자는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則자는 貝(조개 패)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則자의 금문으로 보면 貝자가 아닌 鼎(술 정)자가 鼎(술 정) 그려져 있었다. 鼎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술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鼎자는 신성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則자는 이렇게 신성함을 뜻하는 鼎자에 刀자를 결합한 것으로 칼로 술에 문자를 새겨 넣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금문(金文)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술에 새겨져 있던 글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술에는 어떤 글들을 적어놓았을까? 대부분은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글귀들을 적어놓았다. 신이 전하는 말이니 그것이 곧 '법칙'인 셈이다.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他

다를 타

他자는 '다르다'나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他자는 人(사람 인)자와 也(어조사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다르다'라는 뜻은 본래 佗(다를 타)자가 먼저 쓰였었다. 佗자에 쓰인 它(다를 타)자는 뱀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다르다'나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佗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它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다른(它) 사람(人)'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소전에서서의 它자(它)와 也자(也)가 혼동되었었는지 지금은 也자가 들어간 他자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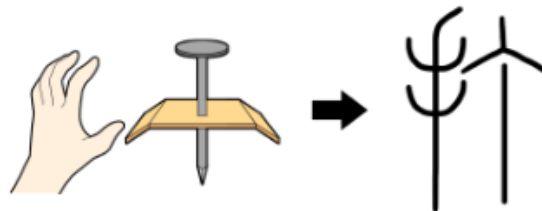
佗

소전

他

해서

회의문자①



打

칠 타:

打자는 '치다'나 '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打자는 手(손 수)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丁자는 나무에 못질할 때 사용하는 '못'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打자는 마치 손으로 못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과도 같다. 다만 打자는 단순히 '때리다'라는 뜻 외에도 어떠한 동작을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접두어로 쓰일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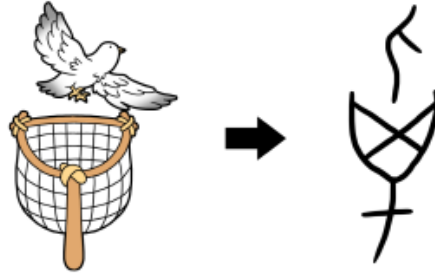
𢦏

소전

打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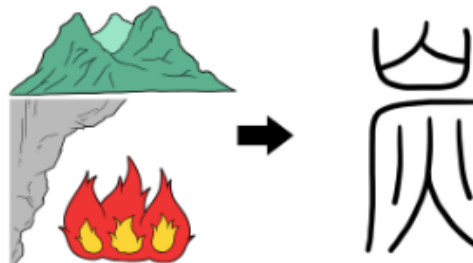
卓

높을 탁

卓자는 '높다'나 '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卓자는 卜(점 복)자와 卓(아침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卓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물 위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卓자가 '높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 이것은 새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새가 그물밖에 그려져 있다. 새가 높은 곳에 있어서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금의 卓자는 이러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 글자의 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 卓자는 새가 하늘 높이 있다는 의미에서 '높다'나 '멀다', '높이세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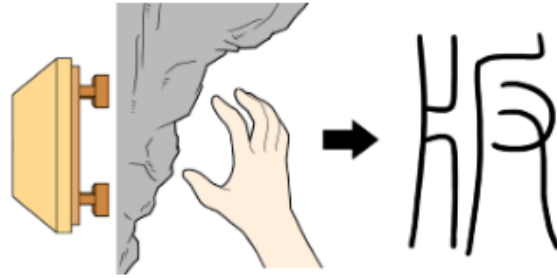
炭

숯 탄:

炭자는 '숯'이나 '목탄', '석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炭자는 山(되 산)자와 厂(기슭 엄)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숯은 높은 온도에서 나무가 타면서 수분과 불순물만 연소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인류가 처음 접했던 숯은 산불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니 炭자는 나무가 있는 산(山)과 기슭(厂), 그리고 불(火)을 결합해 숯이 처음 만들어졌던 장소를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板

널 판

板자는 '널빤지'나 '판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板자는 木(나무 목)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반→판'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片(조각 편)자가 들어간 版(널 판)자가 '널빤지'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木자가 들어간 板자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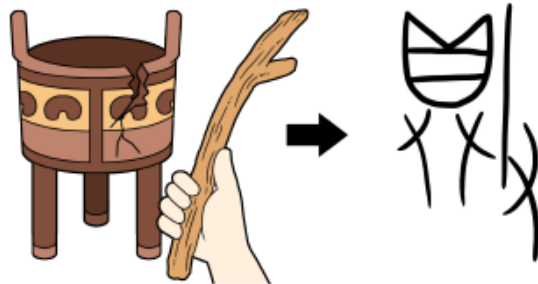
版

소전

板

해서

회의문자①



敗

패할 패:

敗자는 '깨뜨리다'나 '패하다', '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敗자는 貝(조개 패)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敗자의 갑골문을 보면 貝자가 아닌 鼎(술 정)자가 𠂔(칠)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술은 매우 신성시됐다. 그런 술을 그린 鼎자에 攴자가 더해진 것은 신성한 술을 깨부수었다는 뜻이다. 신성한 술이 깨졌다는 것은 적에게 패배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敗자는 '패하다'나 '깨뜨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鼎자가 貝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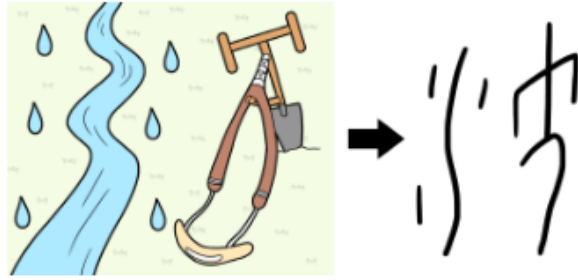
𠂔

소전

敗

해서

## 회의문자①



河

물 하

河자는 '물'이나 '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河자는 水(물 수)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河자는 본래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황하(黃河)를 일컫던 말이었다. 황투고원에서 시작되는 황하는 상류에서 흘러오는 퇴적물이 많아 정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나던 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대부터 황하 일대에서는 독을 쌓아 범람하던 황하를 다스렸었다. 그래서인지 갑골문에 나온 河자는 水자와 方(모 방)자가 𣎵 결합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가래로 독을 쌓는다는 의미이다. 후에 方자가 可자로 바뀌긴 했지만, 본래는 치수의 개념이 반영된 글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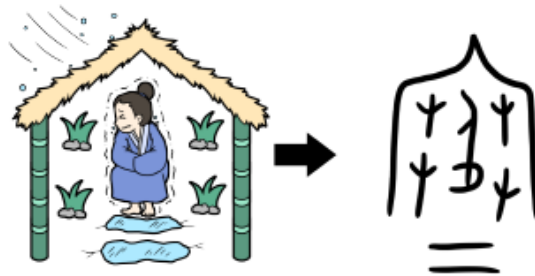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寒

춥 한

寒자는 '차다'나 '춥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寒자의 금문을 보면 宀자와 𠂔자, 人(사람 인)자, 冫(얼음 빙)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특히 사람의 발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얼음이 있다. 발아래에 얼음을 그린 것은 집안이 매우 춥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불도 없이 풀(𠂔)을 깔고 있으니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해서에서는 모습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寒자는 이렇게 변변한 이불도 없이 차가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차다'나 '춥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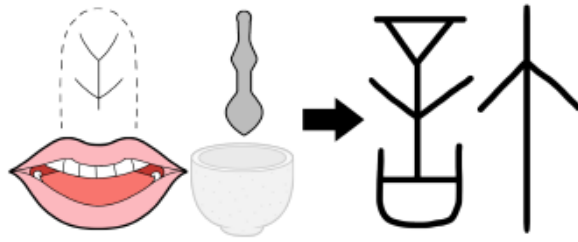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 형성문자①



許

허락할  
허

許자는 '허락하다'나 '승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許자는 言(말씀 언)자와 午(낮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午자는 '낮'이라는 뜻이 있지만 '절굿공이'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절굿공이'를 그린 午자에 言자가 결합한 許자는 본래 절굿공이를 내려치며 내는 소리인 '이영차'라는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고대에는 許자가 의성어로 쓰였었지만, 후에 '허락하다'나 '승낙하다', '나아가다', '바라다', '정도'와 같이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다.

許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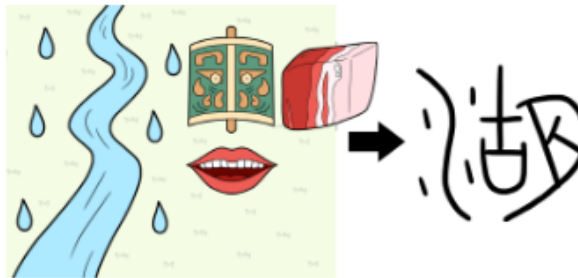
許

소전

許

해서

## 형성문자①



湖

호수 호

湖자는 '호수'나 '큰 못'을 뜻하는 글자이다. 湖자는 水(물 수)자와 胡(턱 밑살 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胡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호수는 물이 넓게 괴어 있는 곳을 말한다. 중국에는 이런 호수가 24,800여 개나 있다. 홍콩의 면적 크기인 1,000km<sup>2</sup> 이상 큰 호수만 해도 13개나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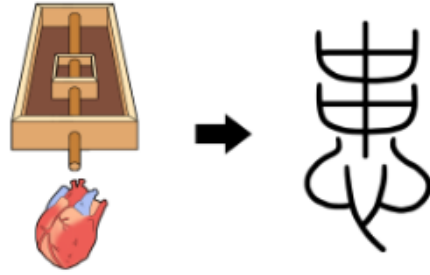
湖

소전

湖

해서

회의문자①



患

근심 환:

患자는 '근심'이나 '걱정',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患자는 串(쥬 관)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串자는 사물을 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물건을 관통하는 모습을 그린 串자에 心자가 결합한 患자는 고행이가 심장까지 관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근심은 마음을 짓누르는 병이다. 병이 들거나 근심 걱정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니 이렇게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患자는 '근심'이나 '질병'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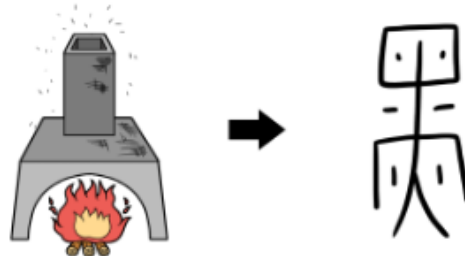
患

소전

患

해서

상형문자①



黑

검을 흑

黑자는 '검다'나 '꺼멩게 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黑자는 아궁이를 그린 것이다. 黑자의 금문을 보면 火(불 화)자 위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 𠂔 그려져 있었다. 불을 지피는 용도인 아궁이는 주위가 꺼멩게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黑자는 '검다'나 '꺼멩게 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白(흰 백)자가 순수함을 상징한다면 黑자는 그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黑자는 '검다'라는 뜻 외에도 '나쁘다'나 '악독하다', '횡령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黑

금문

黑

소전

黑

해서